

“향후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것”

입력 2024.05.24. 오전 12:41 수정 2024.05.24. 오전 8:28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닥터 둠’ 루비니 교수 진단



22~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누리엘 루비니(오른 쪽)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앞으로 세계 경제가 경제적·비경제적 위협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상훈 기자

“앞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률은 낮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의 늪’에서 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적 석학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는 22~23일 열린 조선일보 주최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경제적이고 비(非)경제적 위협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초거대 위협(Mega threats)’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많이 해 ‘닥터 둠(Doom·파멸)’ 소리를 듣는다. 금융 위기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루비니 교수와 대담하면서 “금융위원장이었을

때 루비니 교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는

출생 195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미국 국적)

학력 -이탈리아 보코니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경력 -백악관 경제자문위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방준비제도·미 재무부 이코노미스트
-IMF·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現 뉴욕대 스톤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별명 닥터 둠(Dr. Doom)

저서 -위기 경제학(2010)
-초거대 위협(2022)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초거대 위협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고착화

루비니 교수는 세계 경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전과 차원이 다른 ‘다중 위기’와 ‘영구적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경제·금융 위기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정치적 갈등, 기후 위기, 전염병 확산, 기술 혁명 등 비경제적 위협이 상호작용하면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금리에 따라 각국 정부의 부채 위험이 커지고, 탈세계화 속에서 경제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고, 국제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위안화 등 다른 통화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점도 큰 변화”라고 짚었다.

루비니 교수는 이런 위협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등으로 성장은 위축

되고,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늘어나 물가를 자극하는 데다 친노조 정책 등으로 임금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경제에 대해선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착륙까지는 아니겠지만, 5%대 성장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울퉁불퉁한’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봤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에 대해선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과 통합도가 낮은 편이어서 중국 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선 “오는 9월에 한 번,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총 두 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저출생, AI 일자리 위기에 오히려 도움 될 수도”

루비니 교수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에 대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역발상적인 얘기를 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발달로 이러한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지금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인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시대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의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안에서도 고급 반도체 등 여러 분야가 있고, 한국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다”며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등 다양한 첨단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의 혁명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일부로 편입돼 있고, 미·중 갈등 속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한국 경제의 주된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해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수익성과 주가를 높이는 것 외에도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더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작년 11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문제 삼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아무 규제 없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에 왜

곡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Copyright ©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6114>

‘닥터 둠’ 루비니 “초불확실성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메가 위협’ 온다”

입력 2024.05.22. 오후 8:01 수정 2024.05.22. 오후 8:14

“전 세계적으로 경제·비경제적 위협 존재”

“트럼프 당선 땀 무역전쟁 가능성도”

“중국 경제성장 정점 달해... 韓에도 영향”

“‘저출생’ 아이들 숫자보다 생산성 높여야”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닥터 둠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세계적 석학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 /김민정 기자

“이제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

체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부채는 쌓이는 ‘메가 위협’이 올 수 있다.”

‘닥터 둠(Dr. Doom)’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석학 누리엘 루비니(66)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는 22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의 ‘닥터 둠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계 미국인으로서 터키에서 태어난 루비니 교수는 이탈리아 보코니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루비니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강연하며 “경제 위기가 세계를 덮칠 것”이라며 ‘12단계 붕괴론’을 제시했다. 2008년 그의 예고가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되자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루비니 교수는 “우리는 전례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위협과 다른 양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경제·비경제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환경, 보건 등의 위협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할지, 고립 정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 오던 물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은 60%까지 관세를 높여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또 소득 불평등과 불확실성에 대해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퇴로 인해 극우와 극좌 포퓰리즘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문제라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국수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이고, 이웃 국가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이날 대담자로 참여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루비니 교수에게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달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루비니 교수는 “그렇다”며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10%씩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용인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중국을 향해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맞은 한국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고령화되는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상식이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상식이 변하고 있다”며 “저·중부가가치 직업은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니 교수는 “AI 기술을 도입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들 숫자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상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Copyright ©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4102>
